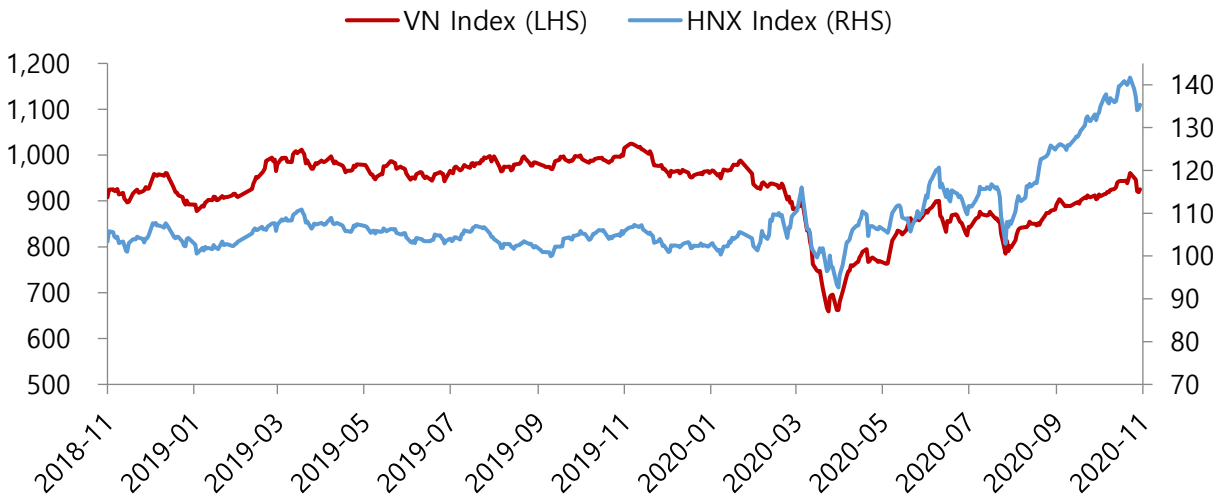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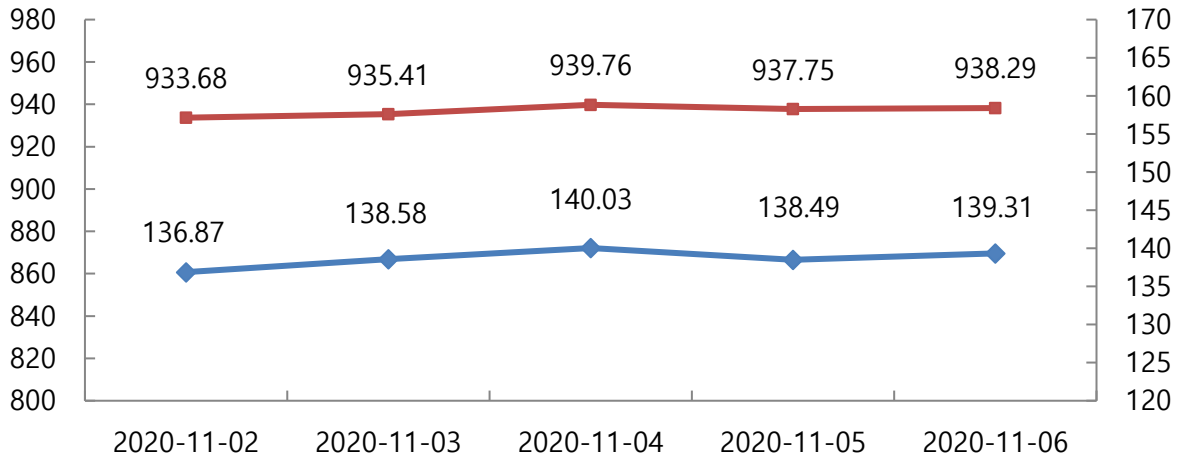
1. 주식시장 뉴스

■ 연간 주식시장 지수 (일별 종가 기준)



■ 주간 주식시장 지수 (일별 종가 기준)



■ 주중 주식시장 개관

주간 외국인 순매도액이 2조동에 육박했으나 지수는 상승하여 지난 주 하락세를 일부 회복했다.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호치민, 하노이 거래소의 거래액이 25~30% 감소하며 지난 20주 평균치를 밑돌았다. 하지만 MSN, BHN, 은행주 등 우량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하며 VN지수는 12.82p(1.4%), HNX지수는 3.97%(2.9%) 상승했다.

■ 개별 기업 뉴스

○ 비엣젯항공 3980만달러 손실

비엣젯은 코로나-19 로 인해 올해 1~9 월에 9250 억동(3983 만달러)가량 손실을 기록했다. 1~9 월 매출은 작년대비 64% 하락하여 13.78 조동에 그쳤다. 1 차 확산이 진정되고 3 분기에 이용객이 300 만명을 넘고 국내선을 8 개 노선 확장하였으나, 2 차확산으로 인해 3 분기 매출은 작년대비 80%가량 하락한 2.8 조동에 그치고 국내선 총 운항편수는 35% 감소했다. 현재 화물기를 확대 운항하고 노이바이 공항에서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해결에 힘쓰고 있다.

2. 주요 경제 동향

■ 항공, 관광, 소비재 중심의 제 2 차 산업구제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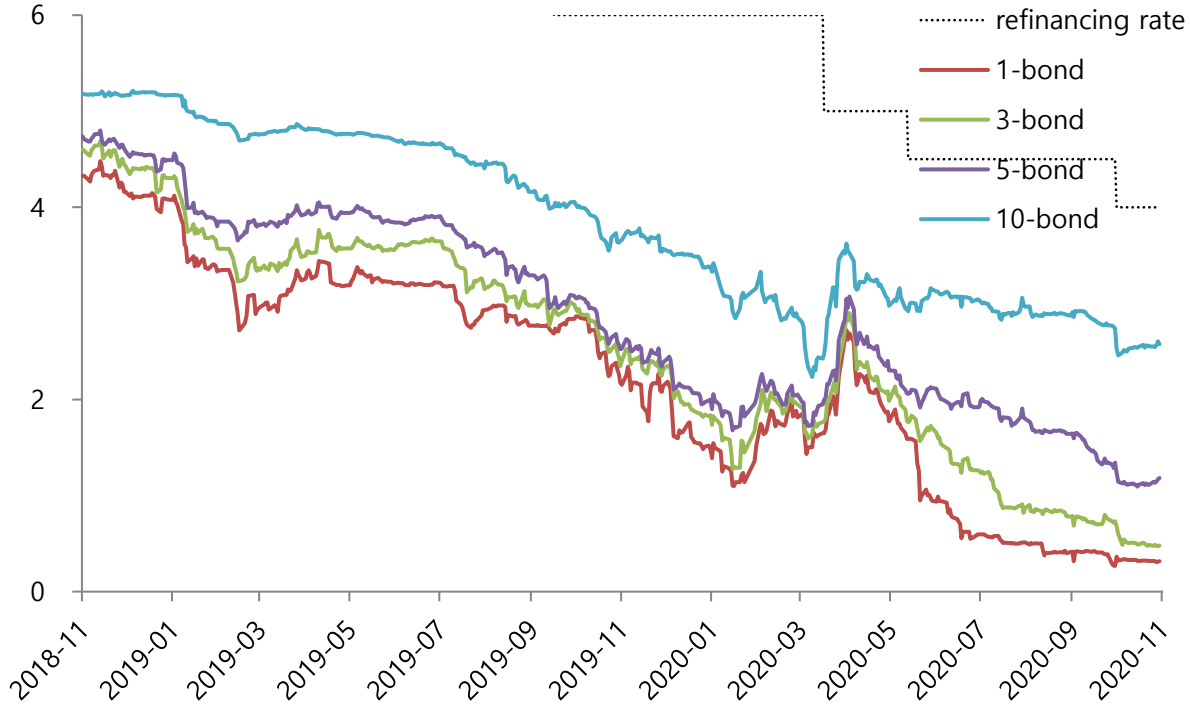
기획투자부는 181.4 조동 규모의 1 차 산업구제안 이후, 항공, 관광 및 필수소비재를 중심으로 제 2 차 산업구제안을 하달했다. 항공사는 국영투자회사 대출 시 정부 보증을 받을 수 있고 2021 년 항공유에 매기는 환경보호세가 70% 인하된다. 관광회사는 최소 1~5 억동을 예치해야 하지만 2022 년 11 월까지 이를 80% 축소하여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. 정부는 필수소비재의 소비 진작을 위해 부가가치세 인하도 추진 중이다.

■ 베트남 M&A 시장 절반 뚝, 35 억달러 수준으로 축소

베트남 M&A 시장은 코로나-19 에도 큰 영향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, 이어질 뉴노멀 시대에는 그 시장규모가 35 억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. 이는 2019 년 72 억달러 수준의 48.6%에 불과하다. 조사기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M&A 건수와 규모는 각각 작년대비 32% 적은 6938 건, 53% 적은 9.01 억달러 수준이다. 전체 M&A 계약 중 베트남회사가 인수한 비율이 2018 년 18%에서 2019-20 년에 33%로 증가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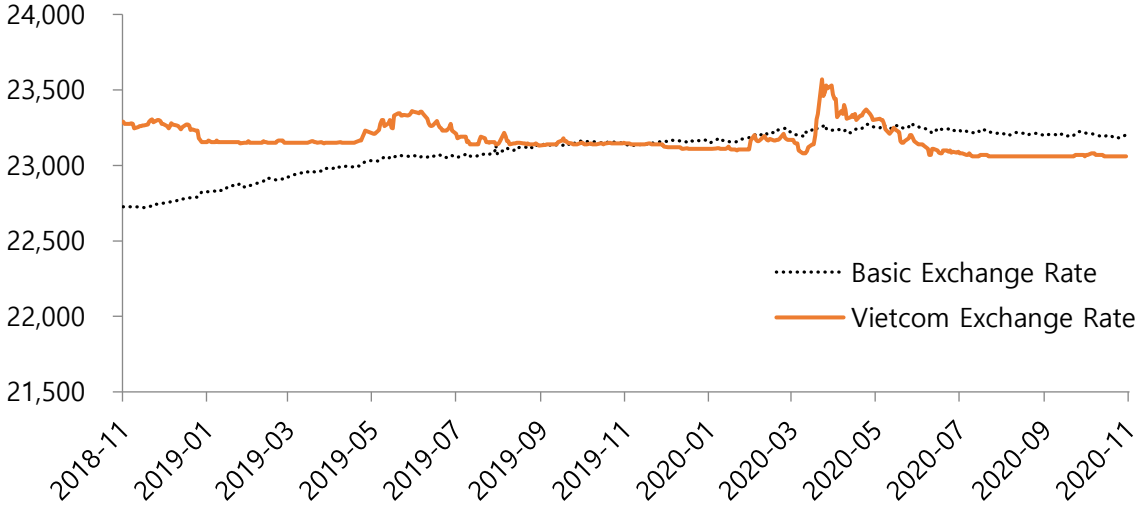
3. 금융 시장 동향

■ 기준 금리 및 국채 금리(SBV, Vietnam Government Bond Rate, %)



■ 환율(Vietcom Bank Exchange Rate, USD Sell Rate, VND/USD)

2020-11-06	Buying	Transfer	Selling
VCB Exchange Rate	23,060	23,090	23,270



■ 무담보채권의 폭주, 회사채 시장 리스크 지적

하노이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9월 회사채 거래액은 16.25조동(약 7억달러)이다. 9월 1일자로 회사채 매매를 규제하는 명령이 발효되어 8월의 83.8조동에 비하면 80%가량 크게 줄었으나, 3~7월의 수치에 비하면 여전히 보통 수준이다. SSI 증권은 현지 업체들이 3분기에 회사채를 지난 분기보다 29% 많은 164.4조동 발행했으나 올해 9월까지 무담보채권이 43조동, 특히 그 중 부동산회사의 채권이 20.5조동 규모임을 지적하며 이자 지불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.

■ 중앙은행, 해외결제에 해외중개사 허용 검토

베트남 중앙은행은 국내 시중은행과 지불중개업체가 해외의 지불중개업체와 협업하여 해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계획 중이다. 현재 국내 은행은 해외결제를 위해 해외 은행 및 해외 카드사만 통할 수 있어, 해외 가상계좌를 통한 해외결제에 대한 규정이 없다. 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베트남에 1300만 개 가량의 가상계좌가 존재했고 이는 총 1.36조동(5862만 달러) 규모이다.

4. 부동산 시장 동향

■ 동나이성에 쏟아지는 해외투자

동나이성은 연간 해외투자액 목표인 11 억달러를 넘어, 11 월까지 11.8 억달러를 유치하며 목표 조기달성이 예상된다. 총 160 개 프로젝트 중 98 건은 등기 자본금을 7 억달러 이상 추가했다. 지역 당국 역시 인프라 및 산업공단 구축, 행정개선 가속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. 동나이는 2021-2025 년에 50~60 억달러, 2026-2030 년에 60~70 억달러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. 동나이에 68 억달러 이상 투자한 대한민국은 효성, 삼일을 비롯한 기업들이 진출한 바 있다.

5. 한국 기업 동향

■ LG 전자, 다낭에 제 2 의 R&D 센터 계약

LG전자가 최근 베트남 부동산 개발업체 쭝남랜드(Trung Nam Land)사와 다낭 정보기술파크 타워 건물 2개 층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. 현지 언론은 이번 계약이 지난 달 다낭투자진흥원과의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. 이로써 LG전자는 4년 전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설립한 자동차 전장사업(VS) 관련 R&D센터의 다낭 분소 설립에 더욱 속도가 날 전망이다.

(More information:
http://www.wowtv.co.kr/NewsCenter/News/Read?articleId=A202011040008&t=NN)

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정지호 *restpine@gmail.com / jiho@jplawvn.com +84-96-280-6012*

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.
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*jplaw@jplaws.com* 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